

| 2019년 서울연구논문공모전 |

주거특성이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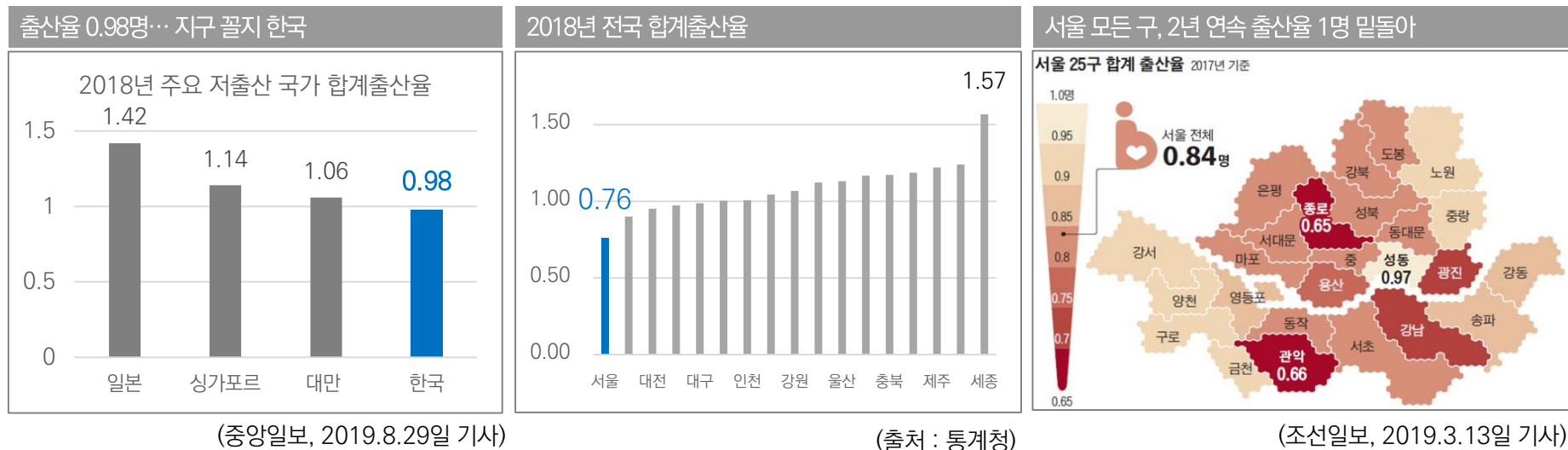
CONTENTS

- 01 연구 배경 및 목적
- 02 선행연구 검토
- 03 연구방법
- 04 분석 결과
- 05 결과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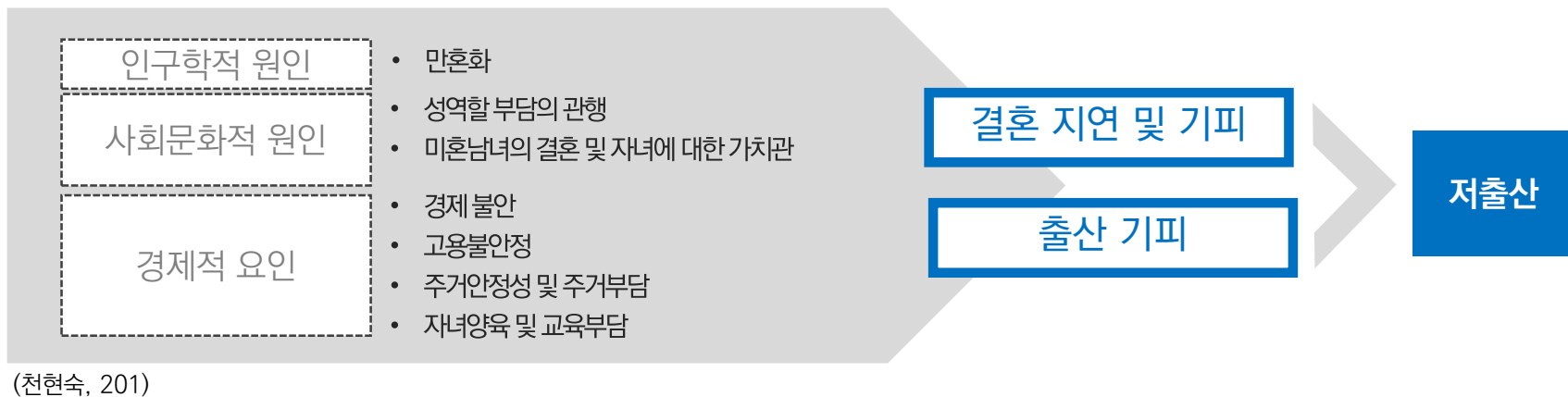
PART 1 연구배경 및 목적

- 01. 연구 배경
- 02. 연구 목적

|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심각, 특히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출산율 기록



| 저출산 원인





주거 문제

결혼과 출산에는 '주거'공간 필수 → 주거문제 = 저출산 원인

- 주거 정책 :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마련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짐

(천현숙 외, 2016; 이삼식·최효진, 2012)

Poor Residential Environments

열악한 주거 환경



- 서울시 청년들의 37%가 '자옥고'와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
- 서울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 37.2%, 2000년 이후 계속 증가
- 역주행 현상: 전체 가구의 주거빈곤 비율 ↓, 서울 청년가구만 주거빈곤율 ↑

Housing Affordability

주 거 비 부 담

서울 집값 평균 7억 ... 내 집 마련, 월급 안 쓰고 다 모아도 11년

[중앙일보] 입력 2018.05.14 01:09 수정 2018.05.15 07:35 종합 10면 지면보기



- 서울의 높은 주택 가격으로 주거비 부담 증가
→ 열악한 주거환경 주택 거주 지속화
- 월세에서 전세나 자가로 전환이 어려워 월세 고착

2018년 주거실태조사

서울 PIR

8.8배

전국평균 5.6

주거-출산 밀접한 관련

서울 저출산 및
출산 감소 추세

서울 청년 주거 문제

기존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주거상황을 고려X, 일부 특성만 포함
저출산 문제와 청년들의 주거상황이 열악한
서울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주거 상황과 출산의사에 대한 종합적 연구 미비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서울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 특성이 기혼 여성들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주거 측면에서 출산 의사를 감소시키는 요인들을 확인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 주택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PART 2 선행연구 검토

- 01. 선행연구
- 0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인구학적 특성+가구 특성+경제적 특성+주거 특성

Demographic Characteristic 인구학적 특성

[연령 & 초혼연령] (신혜원 외, 2009; 김정석, 2007)

- 연령이 많은 수록 추가적인 출산 계획 X
- 늦은 결혼으로 결혼연령이 높은 수록 출산 계획 O

[교육수준]

- 출산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송유진, 2014; 정은희·최유석, 2013)
-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출산의사에 긍정적인 영향
(염지혜, 2013; 신인철, 2009; 신혜원 외, 2009)

Household Characteristic 가구 특성

[자녀수] (송유진, 2014; 염지혜, 2013; 신인철, 2009)

- 기존에 자녀가 있는 가구의 출산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자녀수가 많을 수록 출산의사 감소

Household Characteristic 경제적 특성

[취업 및 경제활동]

- 중요한 요인이지만 상반된 결과를 보임
- 취업한 여성일수록,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일수록 출산 의사 O (이승주·문승현, 2017; 송유진, 2014)
- 경제활동을 할수록, 취업한 여성일수록 출산의사 X (천현숙 외, 2016; 신인철, 2009; 신혜원 외, 2009)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인구학적 특성+가구 특성+경제적 특성+주거 특성

Housing Characteristic

주 거 특 성

[점유형태]

- 자가일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 (박서연, 2019; 이상포 ·노정현, 2017; 이상림 ·이지혜, 2017)
- 첫 자녀를 출산하거나 추가적으로 출산을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요인 (곽윤철, 2017; 천현숙 외, 2016)

[주택규모] (천현숙 외, 2016)

- 15평 이하일 경우 자녀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모두 출산 연기
- = 작은 규모의 주택은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

[방수] (곽윤철, 2016)

- 방 수가 많을수록 (=주택 규모가 넓을수록) 출산 연기하지 않음

[주택 노후도] (이상포 ·노정현, 2017; 천현숙 외, 2016)

- 주택 노후도는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주택유형] (박서연, 2019)

-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 주택에 거주할수록 긍정적인 출산 계획

다양한 영향요인



출산
의사

기존 연구의 한계

- 출산율의 지역간 차이
- 자녀 유무에 따른 출산 의사 차이
- 서울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거빈곤’이라는 특성 고려 부족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저출산 문제와 청년 세대의 주거 환경이 가장 열악한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을 포함한 주거 특성이 **자녀가 없는 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의
 기혼 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한계 개선

PART 3 연구 방법

- 01. 연구 자료 및 대상
- 02. 변수 구성
- 03. 분석 방법

연구 자료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IDS)의 원격접근서비스(RAS)
- 목적: 우리나라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마다 전체 국민과 주택에 대해 조사하여 지역 정책 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기본통계조사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파악가능한 내용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가구 현황

주택 특성

연구 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결혼 적령기(25-40세)의 기혼 여성



최저주거기준에 명시된 **총 6개의 표준 가구**

-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총 22개의 가구형태,
모든 유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적용에 한계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 구성
1	1인가구
2	부부
3	부부+자녀1
4	부부+자녀2
5	부부+자녀3
6	노부모+부부+자녀2

불완전하거나 이상치를 제외한 **68,111개 자료**
(무자녀 가구18,251개+유자녀 가구49,860개)

구분		설명		단위	
종속	출산 의사		0=없음, 1=있음	더미	
인구	연령		여성의 연령	세	
	초혼연령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연령	세	
	교육수준		1=받지 않음,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교(2,3년제), 6=대학교(4년제 이상), 7=대학원이상	명목	
가구	자녀 수		아동 수	명	
	거주 지역	도심권(참조)	0=도심권 외, 1=도심권	더미	
		동북권	0=동북권 외, 1=동북권	더미	
		동남권	0=동남권 외, 1=동남권	더미	
		서북권	0=서북권 외, 1=서북권	더미	
		서남권	0=서남권 외, 1=서남권	더미	
독립	경제	근무연수		현재 직업의 근무연수 (1=없음, 2=6개월 미만, 3=6~12개월, 4=1년~3년 미만, 5=3년~5년 미만, 6=5년~10년, 7=10~15년 미만, 8=15년~20년 미만, 9=20년 이상)	명목
		경제활동	무직(참조)	0=무직 외, 1=무직	더미
			임금근로	0=임금근로자 외, 1=임금근로자	더미
			자영업	0=자영업 외, 1=자영업	더미
	다른 주택		타지 주택 소유 여부 (0=없음, 1=있음)	더미	
	주거	점유형태	자가	0=자가 외, 1=자가	더미
			전세	0=전세 외, 1=전세	더미
			월세(참조)	0=월세 외, 1=월세	더미
주택유형		아파트(참조)	0=아파트 외, 1=아파트	더미	
		단독	0=단독 외, 1=단독	더미	
		연립/다세대	0=연립/다세대 외, 1=연립/다세대	더미	
주택 노후도		1=10년 이하, 2=11~20년, 3=21~30년, 4=31년 이상	명목		
최저주거기준		0=최저주거기준 충족, 1=최저주거기준 미달	더미		

종속변수

결혼한 16세 이상의 여성만 응답

추가
가녀
계수
획

26 앞으로 자녀를 낳으실 계획이 있습니까?

• 현재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합니다.

① 있음

명

② 없음



출산의사 없음 (0)
출산의사 있음 (1)

독립변수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4개의 카테고리
22개의 독립변수로 구성

최저주거기준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최저주거기준 제2조)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 구성1)	실(방) 구성2)	총 주거면적(m)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 비교: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 분리 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2.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최저주거기준 제3조)

- 1)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 시설 2) 전용 입식부엌
- 3) 전용 수세식화장실 4) 목욕시설(전용 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

3.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최저주거기준 제4조)

- 1) 영구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출처: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 5. 27., 일부개정)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 가능한 세부 기준 활용

최저주거기준 적용

주거면적 및 방 개수

설비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 관련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방열,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반지하, 지하, 옥탑** 거주를 해당 기준 미달로 파악
(이다는·서원석, 2019; 김동배 외, 2012)



해당 기준 중 하나의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정의

Binary Logistic Model 이항 로지스틱 모형

- 종속변수가 연속형이 아닌 2개의 범주를 가질 때 사용하는 방법
- $\text{Log}(p/1-p)$ 종속변수, X 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β_0 는 절편, β_m 은 해당 독립변수의 추정 계수
- 승산비($\text{Exp}(B)$ 또는 Odds Ratio)를 통해서도 결과 파악 가능

$$\text{Log}\left(\frac{p_i}{1-p_i}\right)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cdots + \beta_n X_n$$

기혼 여성 중에서도 첫째 자녀 출산인지, 둘째 자녀 출산인지에 따라 출산의사가 상이함으로 출산한 경험이 없는 무자녀 모형과 1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유자녀 가구로 구분하여 분석 실시

(박수미, 2008; 김정석, 2007)



PART 4 분석 결과

01. 기초 통계
02. 주거 특성이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분석

| 출산의사 | 무자녀 가구 76% / 유자녀 가구 22%

구분		무자녀 가구				유자녀 가구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종속		출산 의사	0.76	0.42	0	1	0.22	0.41	0	1	
독립	인구	연령	32.37	3.68	25	40	35.25	3.34	25	40	
		초혼연령	29.33	3.44	14	40	27.64	3.17	13	39	
		교육수준	5.65	0.92	1	7	5.54	0.94	1	7	
		자녀 수	-	-	-	-	1.52	0.58	1	3	
	가구	거주 지역	도심권(참조)	0.06	0.25	0	1	0.05	0.22	0	1
			동북권	0.28	0.45	0	1	0.31	0.46	0	1
			동남권	0.20	0.40	0	1	0.22	0.41	0	1
			서북권	0.12	0.32	0	1	0.11	0.31	0	1
			서남권	0.33	0.47	0	1	0.31	0.46	0	1
			근무연수	3.71	2.62	1	9	2.64	3.00	1	9
	경제	경제 활동	무직(참조)	0.28	0.45	0	1	0.52	0.50	0	1
			임금근로	0.65	0.48	0	1	0.42	0.49	0	1
			자영업	0.07	0.25	0	1	0.06	0.23	0	1
			다른 주택	0.11	0.31	0	1	0.17	0.37	0	1
	주거	점유 형태	자가	0.27	0.44	0	1	0.42	0.49	0	1
전세			0.51	0.50	0	1	0.44	0.50	0	1	
월세(참조)			0.22	0.41	0	1	0.14	0.36	0	1	
주택 유형		아파트(참조)	0.50	0.50	0	1	0.65	0.48	0	1	
		단독	0.23	0.42	0	1	0.15	0.36	0	1	
		연립/다세대	0.28	0.45	0	1	0.20	0.40	0	1	
		주택 노후도	2.50	1.01	1	4	2.51	0.96	1	4	
		최저주거기준	0.05	0.22	0	1	0.18	0.38	0	1	
표본 수		18,251				49,860					

인구 특성

| 평균 연령 | 32.4세 / 35.3세
 | 초혼 연령 | 29.3세 / 27.6세
 | 교육 수준 | 대학교 (5.7/5.5)

가구 특성

| 거주 지역 | 서남권>동북권>동남권>서북권>도심권
 | 자 녀 수 | 평균 1.5명

경제 특성

| 근무 연수 | 평균 1~3년 / 6~12개월
 | 경제 활동 | (무자녀) 임금근로(65%)>무직(28%)
 (유자녀) 무직(52%)>임금근로(42%)
 | 다른 주택 | 11% / 17% 정도 다가구 주택

주거 특성

| 점유 형태 | 전세>자가>월세
 - 유자녀 가구: 전세(44%)>자가(42%) 비슷한 수준
 - 무자녀 가구: 자가(27%)>전세(51%) 차이가 크고, 월세(22%) 높음
 | 주택 유형 |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 주택 노후도 | 평균 21~30년 정도
 | 최저주거기준미달 | 5.3% / 17.7%
 - 유자녀 가구가 무자녀 가구에 비해 3배 이상 높음

구분			무자녀 가구(모형 1)			유자녀 가구(모형 2)		
			B	Wald	Exp(B)	B	Wald	Exp(B)
상수항			2.891***	121.060	-	5.442***	782.222	-
인구	연령		-0.271***	1,00.209	0.763	-0.299***	3,892.151	0.742
	초혼연령		0.213***	995.135	1.237	0.216***	1,854.932	1.241
	교육수준		0.092***	17.022	1.096	0.03*	3.684	1.030
가구	자녀수		-	-	-	-1.902***	2,970.506	0.149
	거주 지역	동북권	0.371***	19.939	1.449	-0.115*	3.339	0.891
		동남권	0.386***	23.346	1.471	-0.111*	3.260	0.895
		서북권	0.056	0.408	1.058	-0.109	2.534	0.897
		서남권	0.302***	14.837	1.826	-0.126**	4.207	0.882
경제	근무연수		0.066***	18.028	1.068	0.031**	6.379	1.031
	경제 활동	임금근로	-0.488***	28.232	0.614	-0.197***	7.071	0.821
		자영업	-0.546***	25.282	0.579	-0.007	0.008	0.993
	다른 주택		0.222***	12.195	1.249	0.093**	6.602	1.097
주거	점유 형태	자가	0.345***	34.51	1.412	-0.058	1.867	0.944
		전세	0.387***	60.417	1.473	0.019	0.224	1.019
	주택 유형	단독	-0.191***	11.491	0.826	0.002	0.004	1.002
		연립/다세대	-0.134***	7.332	0.875	0.082**	5.625	1.085
	주택노후도		0.015	0.504	1.015	-0.022	2.536	0.978
	최저주거기준		-0.184**	4.648	0.832	-0.120***	8.869	0.887

p<0.1(*), p<0.05(**), p<0.01(***)

인구 특성

-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에 대해 인구학적 특성은 비슷한 경향

연령이 낮을수록,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 출산 의사 있음

(연령) 여성 연령 증가=가임 능력 감소

(초혼연령) 늦은 결혼을 만회하기 위해 출산시기 앞당기는 '따라잡기 효과'

(교육수준) 전체적 교육수준이 높아졌으며,

높은 교육수준은 경제력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

(도난영·최막중, 2018; 송유진, 2014; 신혜원 외, 2009;

Brodmann et al. 2007; 김정석, 2007; 은기수, 2001)

구분			무자녀가구(모형1)			유자녀가구(모형2)		
			B	Wald	Exp(B)	B	Wald	Exp(B)
상수항			2.891***	121.060	-	5.442***	782.222	-
인구	연령		-0.271***	1,00.209	0.763	-0.299***	3,892.151	0.742
	초혼연령		0.213***	995.135	1.237	0.216***	1,854.932	1.241
	교육수준		0.092***	17.022	1.096	0.03*	3.684	1.030
가구	자녀수		-	-	-	-1.902***	2,970.506	0.149
	거주 지역	동북권	0.371***	19.939	1.449	-0.115*	3.339	0.891
		동남권	0.386***	23.346	1.471	-0.111*	3.260	0.895
		서북권	0.056	0.408	1.058	-0.109	2.534	0.897
		서남권	0.302***	14.837	1.826	-0.126**	4.207	0.882
경제	근무연수		0.066***	18.028	1.068	0.031**	6.379	1.031
	경제 활동	임금근로	-0.488***	28.232	0.614	-0.197***	7.071	0.821
		자영업	-0.546***	25.282	0.579	-0.007	0.008	0.993
	다른 주택		0.222***	12.195	1.249	0.093**	6.602	1.097
주거	점유 형태	자가	0.345***	34.51	1.412	-0.058	1.867	0.944
		전세	0.387***	60.417	1.473	0.019	0.224	1.019
	주택 유형	단독	-0.191***	11.491	0.826	0.002	0.004	1.002
		연립/다세대	-0.134***	7.332	0.875	0.082**	5.625	1.085
	주택노후도		0.015	0.504	1.015	-0.022	2.536	0.978
	최저주거기준		-0.184**	4.648	0.832	-0.120***	8.869	0.887

p<0.1(*), p<0.05(**), p<0.01(***)

가구 특성: 자녀 수

- 승산비(Exp(B)=6.7) 유자녀 가구의 출산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 출산 의사 없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1명 출산하는 것보다 1명에서 2명 출산하는 것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

(신인철, 2009)

가구 특성: 거주지역

-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는 거주지역에 따라 출산 의사 반대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에 거주
무자녀 가구 → 출산 의사 있음
유자녀 가구 → 출산 의사 없음

구분			무자녀가구(모형1)			유자녀가구(모형2)		
			B	Wald	Exp(B)	B	Wald	Exp(B)
상수항			2.891***	121.060	-	5.442***	782.222	-
인구	연령		-0.271***	1,00.209	0.763	-0.299***	3,892.151	0.742
	초혼연령		0.213***	995.135	1.237	0.216***	1,854.932	1.241
	교육수준		0.092***	17.022	1.096	0.03*	3.684	1.030
가구	자녀수		-	-	-	-1.902***	2,970.506	0.149
	거주 지역	동북권	0.371***	19.939	1.449	-0.115*	3.339	0.891
		동남권	0.386***	23.346	1.471	-0.111*	3.260	0.895
		서북권	0.056	0.408	1.058	-0.109	2.534	0.897
		서남권	0.302***	14.837	1.826	-0.126**	4.207	0.882
경제	근무연수		0.066***	18.028	1.068	0.031**	6.379	1.031
	경제 활동	임금근로	-0.488***	28.232	0.614	-0.197***	7.071	0.821
		자영업	-0.546***	25.282	0.579	-0.007	0.008	0.993
	다른 주택		0.222***	12.195	1.249	0.093**	6.602	1.097
주거	점유 형태	자가	0.345***	34.51	1.412	-0.058	1.867	0.944
		전세	0.387***	60.417	1.473	0.019	0.224	1.019
	주택 유형	단독	-0.191***	11.491	0.826	0.002	0.004	1.002
		연립/다세대	-0.134***	7.332	0.875	0.082**	5.625	1.085
	주택노후도		0.015	0.504	1.015	-0.022	2.536	0.978
	최저주거기준		-0.184**	4.648	0.832	-0.120***	8.869	0.887

p<0.1(*), p<0.05(**), p<0.01(***)

경제 특성

-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에 대해 경제적 특성은 유사한 경향

근무연수가 오래될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다른 주택을 보유할수록 → 출산 의사 있음

(직업) 출산 이후 높은 '복귀 장벽' + '경력단절'

육아=여성의 역할이 큰 부분

→ 출산과 여성 경제활동은 역의 관계

(근무연수) 오랜 근무 → 고용 안정성 및 복귀 가능성 증가

(다른 주택) 가구의 자산으로, 주택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록

일찍 출산한다는 기존연구와 같은 맥락

(배호중 · 한창근, 2016; 신혜원 외, 2009; 한유미 · 곽혜경, 2004;
김지경 · 조유현, 2003)

구분			무자녀가구(모형1)			유자녀가구(모형2)		
			B	Wald	Exp(B)	B	Wald	Exp(B)
상수항			2.891***	121.060	-	5.442***	782.222	-
인구	연령		-0.271***	1,00.209	0.763	-0.299***	3,892.151	0.742
	초혼연령		0.213***	995.135	1.237	0.216***	1,854.932	1.241
	교육수준		0.092***	17.022	1.096	0.03*	3.684	1.030
가구	자녀수		-	-	-	-1.902***	2,970.506	0.149
	거주 지역	동북권	0.371***	19.939	1.449	-0.115*	3.339	0.891
		동남권	0.386***	23.346	1.471	-0.111*	3.260	0.895
		서북권	0.056	0.408	1.058	-0.109	2.534	0.897
		서남권	0.302***	14.837	1.826	-0.126**	4.207	0.882
경제	근무연수		0.066***	18.028	1.068	0.031**	6.379	1.031
	경제 활동	임금근로	-0.488***	28.232	0.614	-0.197***	7.071	0.821
		자영업	-0.546***	25.282	0.579	-0.007	0.008	0.993
	다른 주택		0.222***	12.195	1.249	0.093**	6.602	1.097
주거	점유 형태	자가	0.345***	34.51	1.412	-0.058	1.867	0.944
		전세	0.387***	60.417	1.473	0.019	0.224	1.019
	주택 유형	단독	-0.191***	11.491	0.826	0.002	0.004	1.002
		연립/다세대	-0.134***	7.332	0.875	0.082**	5.625	1.085
	주택 노후도		0.015	0.504	1.015	-0.022	2.536	0.978
	최저주거기준		-0.184**	4.648	0.832	-0.120***	8.869	0.887

p<0.1(*), p<0.05(**), p<0.01(***)

주거 특성 : 점유형태

- 무자녀 가구에 대해서만 유의미

월세보다 **자가**와 **전세**에 거주할수록
→ 출산 의사 있음

* 주거 안전성으로 인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

* 주거 안전성은 출산을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요인

(이상림·이지혜, 2017; 천현숙 외, 2016)

주거 특성 : 주택유형

-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는 반대의 결과를 보임

(무자녀) **단독, 연립/다세대** → 출산 의사 (-)
(유자녀) **연립/다세대** → 출산 의사 (+)

(무자녀-주택유형) 생활환경의 편리성과 양호한 보육환경이 출산 결정 증가
(유자녀-주택유형) 양육 및 교육비가 증가되는 만큼 주거비에 대한 지출 감소
→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작은 연립/다세대 주택이 출산에 긍정적 영향
→ 유자녀 가구의 경우 출산에 주거비가 영향을 미침

(박서연, 2019; 임보영 외, 2018; 이상포·노정현, 2017; 장진희·박성준, 2015)

구분			무자녀가구(모형1)			유자녀가구(모형2)		
			B	Wald	Exp(B)	B	Wald	Exp(B)
상수항			2.891***	121.060	-	5.442***	782.222	-
인구	연령		-0.271***	1,00.209	0.763	-0.299***	3,892.151	0.742
	초혼연령		0.213***	995.135	1.237	0.216***	1,854.932	1.241
	교육수준		0.092***	17.022	1.096	0.03*	3.684	1.030
가구	자녀수		-	-	-	-1.902***	2,970.506	0.149
	거주 지역	동북권	0.371***	19.939	1.449	-0.115*	3.339	0.891
		동남권	0.386***	23.346	1.471	-0.111*	3.260	0.895
		서북권	0.056	0.408	1.058	-0.109	2.534	0.897
		서남권	0.302***	14.837	1.826	-0.126**	4.207	0.882
경제	근무연수		0.066***	18.028	1.068	0.031**	6.379	1.031
	경제 활동	임금근로	-0.488***	28.232	0.614	-0.197***	7.071	0.821
		자영업	-0.546***	25.282	0.579	-0.007	0.008	0.993
	다른 주택		0.222***	12.195	1.249	0.093**	6.602	1.097
주거	점유 형태	자가	0.345***	34.51	1.412	-0.058	1.867	0.944
		전세	0.387***	60.417	1.473	0.019	0.224	1.019
	주택 유형	단독	-0.191***	11.491	0.826	0.002	0.004	1.002
		연립/다세대	-0.134***	7.332	0.875	0.082**	5.625	1.085
	주택노후도		0.015	0.504	1.015	-0.022	2.536	0.978
	최저주거기준		-0.184**	4.648	0.832	-0.120***	8.869	0.887

p<0.1(*), p<0.05(**), p<0.01(***)

주거 특성 : 최저주거기준

- 주거 특성 중 유일하게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에 동일한 영향

최저주거기준 미달일수록 → 출산 의사 부정적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자구적 노력만으로 개선 한계
장기화되거나 세대 내 재산상, 세대간 전이 가능성 높음
자녀를 부정적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에 대한 우려

- 주거특성 중 **출산 의사는 낮추는 주요한 원인**

- 가구와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

* 신체적 만성질환, 우울, 자존감 저하 야기

* 아동의 경우 학업성취, 학교적응 저하 유발+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분노, 우울과 같은 부정적 문제 경험

→ 출산율 증가와 가구와 아동들을 위해서도
주택 정책에 있어 주요하게 다루어 져야함

(이다운·서원석, 2019; 박정민·허용창 외, 2015; 김승연 외, 2013;
김동배 외, 2012; 임세희, 2010; 박문수, 2000)

PART 5 결론 및 시사점

- 01. 연구의 결론
- 02.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여
주거특성이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파악

01

주거특성은 자녀를 출산 하는 데 중요한 요인

-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의 주거특성에 따른 출산 의사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
- 점유형태는 유자녀 가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무자녀 가구에서는 유의미한 변수로, 월세보다 자가, 전세에 거주할 수록 출산 의사 증가 → 첫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 주거안전성 중요
- 주택유형의 경우 아파트(생활환경 편리성 및 양호한 교육환경)에 거주할수록 첫 자녀 출산에 대해, 연립/다세대 주택(양육 및 교육비 증가로 인한 주거비 지출 감소)에 거주할수록 다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 의사

02

최저주거기준 미달 →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두의 출산 의사 감소

- 주거 특성에서 유일하게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출산 의사에 동일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주거 특성 중에서 출산 의사를 감소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는 가구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

1 저출산 대책에 있어 주택 정책의 지속적인 관심 요구

- 1명의 자녀 출산과 2~3명의 다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목적에 따라 차별적 주택 정책 수립
- 출산 관련 주거 정책에 있어 최저주거기준은 주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음

2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

- 청년이나 부부를 대상으로 월세, 전세 및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실시하고 있는 데, 이는 주거 상향에 도움 뿐 아니라 지하, 옥탑, 고시원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주택에서 조금 더 양호한 주택으로의 이동에 기여
→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 홍보 필요
-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버팀목전세자금, 디딤돌대출)하고 있는 데, 우선적으로 1~2명의 출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자녀 보다 유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현실적

3 출산 촉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증대 필요

-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탈출 기간을 감소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빈곤 해소를 통해 출산 의사를 높일 수 있음

- 이희연·노승철, 2012, 「고급통계분석론: 이론과 실습」, 파주: 법문사.
- 이삼식·최효진, 2012,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림·이지혜, 2017, 「신혼부부 주거생활주기와 출산 간의 연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진희·박성준, 2016, 「서울시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천현숙·이길제·김준형·윤창원, 2016,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은영·권지웅·김기태·정남진·정원준·황서연, 2014, 「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연구」, 민주정책연구원.
- 강수진·서원석, 2019, “주거특성이 거주자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주택점유형태별 주거비부담을 중심으로”, 「주택도시연구」, 9권 1호: 13-29
- 김동배·유병선·신수민, 2012,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서비스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4): 1041-1061.
- 김승연·김세림·이진석, 2013, “주거환경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34: 109-133.
- 김정석, 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 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김지경·조유현, 2003, “젊은 여성의 첫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6(3): 181-207.
- 도난영·최막중, 2018,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 및 첫째,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26(2호): 163-189.
- 박서연, 2019, “신혼부부의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HLM 을 활용한 신혼부부의 주거특성과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35(1): 59-72.
- 박수미, 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9-77.
- 박신영, 2012,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보건복지포럼」, 184: 33-46.
- 박정민·오욱찬·이건민, 2015,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의 주거취약 유형화와 관련요인”, 「사회복지연구」, 46(2): 101-123.
- 박정민·허용창·오욱찬·윤수경, 2015, “주거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7(2): 137-159.
- 서원석, 2019, “대도시권 주거이동 가구의 이동유형별 주거특성 및 주거만족도 비교분석”, 「GRI 연구논총」, 21(1): 49-69.
- 신인철, 2009, “기혼여성의 자녀출산 계획에 대한 공간효과 분석”, 「한국인구학」, 32(2): 59-85.
- 이다은·서원석, 2017, “가족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의 인식 비교연구”, 「주택도시연구」, 7(2): 37-53.
- 이다은·강수진·강민성·서원석, 2018,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차별경험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관계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36(2): 31-46.
- 이승주·이소민·문승현, 2017, “부모·자녀의 이중부양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9: 111-138.
- 임보영·강정구·마강래, 2018, “지역의 주택가격이 결혼과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53(1): 137-151.
- 임세희, 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4): 377-402.
- 은기수, 2001,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한국사회학」, 35(6): 105-139
- 천현숙, 2013, “저출산 추세에 대응한 주택정책 보완방안”, 「국토정책 Brief」, 423: 1-8.
- 한유미·곽혜경, 2004, “현대 한국사회의 출산율 저하와 여성사회참여”, 「한국생활과학지」, 13(1): 29-40.
- 곽윤철, 2017, “경제적 요인이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상대임금과 주거비 부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rodmann, S., Esping-Andersen, G., & Güell, M., 2007, “When fertility is bargained: Second births in Denmark and Spai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5), 599-613.

감사합니다